

『2008년도 행정안전부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조손결연을 통한 우리문화 만들기
(① 사회통합과 평화)

2008. 6. 11

사단법인 범국민예의생활실천운동본부

- 실무책임자 : 직위 : 본부장, 성명 : 최창학(崔昌學)
- 연 락 처 : 전화 02)745-0921, FAX 02)747-4805,
E-mail : beecheon@yahoo.co.kr
홈페이지 : <http://yejeol.or.kr/>
- 주 소 : (110-523)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3가 53번지 성균관유림회관 210호

목 차

| | |
|--|----|
| 1. 2008 지원사업 선정결과 발표 및 보조금 교부신청 안내 | 5 |
| 2. 2008 민간단체 지원사업 신청서(교부신청 및 실행계획) | 13 |
| 3. 참고자료(조손결연(祖孫結緣)에 필요한 자료 및 절차자료) | 27 |
| 1) 결연자 참고자료(청소년) | 29 |
| 2) 결연자 참고자료(어르신)..... | 37 |
| 3) 보도자료(청소년·어르신 사랑의 실천결연사업 실적) | 45 |

2008 지원사업 선정결과 발표 및 보조금 교부신청 안내

1. 2008 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선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발표합니다.

가. 선정현황 : 133개 사업(117개 단체), 49억원 **【붙임1】**

2. 선정된 단체 구비서류

선정된 단체는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정해진 기일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구비서류 **【붙임3】** 서식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실국홈페이지-재난안전실-민관협력-비영리민간단체지원 **바로가기**)에서 내려받기

- 국비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 반드시 뒷면의 보조금 교부조건까지 작성하여 앞면과 연결 간인 날인

- 사업실행계획서 2부

- 보조금 관리 통장 사본 1부

【보조금 통장 개설관련 유의사항】

- 2008년도 보조금 사업비만을 전용으로 입출금할 수 있는 별도 통장 개설
- 복수 사업에 선정된 단체는 각 사업별로 별도 통장 개설
- 기존에 사용하던 행정안전부 보조금 관리 통장을 사용할 경우, 잔고를 정리하여 『0원』으로 만든 후 재사용 가능
- 통장명칭은 단체명과 대표자를 병기하여 개설(개인명의 통장 사용 불가)

- 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 1부

【보증보험 가입 관련 참고사항】

- 이행보증보험증권 가입처 : 시중 보증보험사
- 증권에 기재할 정보
 - 보험가입액 : 국고보조금 지원액 이상
 - 피보험자 : 대한민국 행정안전부장관
 - 보험기간 : 2008.5.1~2009.4.30까지(계속사업도 동일함)
 - 보증내용 : 행정안전부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이행보증
 - 보험계약자 : 신청단체명 (컨소시엄의 경우 대표단체명)

나. 제출기한 : 2008. 5. 9(금)까지

다. 제출처 : 행정안전부 민관협력과

(우)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307호

라.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택배 또는 퀵서비스로는 제출 불가)

※ 보조금교부신청서 및 이행보증보험증권이 원본 제출되어야 함으로
FAX 및 이메일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3. 향후일정

가. 사업실행계획서 심사 : 5. 19일한

나. 1차 보조금 교부(전체 지원액의 80%) : 5. 30일한

다. 선정단체 대상 회계실무 교육 : 6월초

※ 교육일시 및 장소는 홈페이지(www.mopas.go.kr)를 통해 별도 공지

라. 사업 중간평가 : 8 ~ 9월경

마. 2차 보조금 교부(전체 지원액의 20%) : 9 ~ 10월경

4. 기 타

- 지원사업 포기 : 선정단체의 사정 또는 타 기관에서의 중복지원 선정 등의 사유로 2008년도 보조금 지원사업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단체는 포기사유를 명시한 단체장 명의의 포기서를 5.8(목)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번 선정 단체 중 추후, 타 기관에서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중복지원 등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지원금 회수

- 기타 궁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민관협력과 02-2100-3877(정숙희 담당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08년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선정결과 내역

【붙임 2】 보조금 예산편성원칙 및 회계처리기준

【붙임 3】 국비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실행계획서 서식

【붙임1】

2008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대상 사업 유형별 선정내역

2008. 5. 1



행정안전부

① 유형 : 사회통합과 평화

(단위: 백만원)

| 연번 | 사업 번호 | 단체명 | 사업명 | 지원액 |
|----|------------------|-----------------------|--|-----|
| | | 계 | 20개 사업(단년도 17, 계속 3) | 778 |
| 1 | 1-1001 | (사)범국민예의생활실천 운동본부 | 조손결연을통한우리문화만들기 | 50 |
| 2 | 1-1005 | (사)대한민국민족혼 국토지킴이회 | 외국인 유학생 우리역사, 문화세미나 및 탐방 | 30 |
| 3 | 1-1010 | (사)한국청소년연합 | 아동청소년 사랑 범국민실천운동 'Korea's Promise'전개 | 60 |
| 4 | 1-1016 | (사)지구촌사랑나눔 | 행복세상만들기 (외국인노동자와중국동포지원사업) | 17 |
| 5 | 1-1018 | 새마을운동중앙회 | 결혼 이민자 주부 한국적응프로그램 I Love Korea | 52 |
| 6 | 1-1022 |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 국제 가정 친정 부모님 초청행사 | 60 |
| 7 | 1-1024 (계속) | 한국여성노동자회 | 새로쓰는 여성노동자 인권이야기 | 20 |
| 8 | 1-1028 | 해피스마일코리아 | 환경병- '아토피' 의범국민적문제인식과사회융화를위한공 익문화공연캠페인 | 45 |
| 9 | 1-1029 | 이주노동자의방송 | 이주민 공동체와 함께하는 영상문화축제'상상+초월' | 30 |
| 10 | 1-1034 |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 책날개 달아주기 - 소외지역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문화프로그램과 책선물 | 40 |
| 11 | 1-1035 | (사)문화우리 | 잊혀진 상가와 소통하기 - 낙원상가 도큐먼트 | 50 |
| 12 | 1-1037 | 한국자원봉사협의회 | 세대공감워크캠프 | 60 |
| 13 | 1-1041 | 인드라망생명공동체 | 활기찬 마을공동체를 위한 마을리더 양성교육 | 21 |
| 14 | 1-1044 | (사)한국청소년보호연맹 | 취약계층 청소년직업 선택 및 창업 지원프로그램 | 25 |
| 15 | 1-1048 |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 청소년성폭력예방프로젝트 『완전소중한성이야기』 | 50 |
| 16 | 1-1064 | (사)참교육을위한전국 학부모회 |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하는 '좋은 학교, 좋은 교육' 작품전 | 30 |
| 17 | 1-1068 | 한국고유문화콘텐츠진흥회 외2(권) | 국민화합과 나라사랑 마음 함양을위한 '나라꽃무궁화국민축제2008' | 52 |
| 18 | 1-2005 | (사)홍사단 | 화합과 평화를 위한 '청소년통일교육한마당' | 21 |
| 19 | 1-1002 (06계속) | 민족통일협의회 | 찾아가는 통일문화 원정대 | 10 |
| 20 | 1-1051 (07계속) | 한민족복지재단 | 다문화가족의 갈등문제 예방과 정착지원을 통한 가족기능 강화 | 55 |

② 유형 : 문화시민 사회구축

(단위: 백만원)

| 연번 | 사업번호 | 단체명 | 사업명 | 지원액 |
|----|----------------|------------------------|---|-----|
| | | 계 | 21개 사업(단년도 20, 계속 1) | 811 |
| 1 | 2-1002 | 좋은사람 청소년 운동본부 | 『21C미래 사회와 청소년 희망세상!』 | 35 |
| 2 | 2-1003 | 독도유인도화국민운동본부 | 독도의각종문서전시물제작사업 | 10 |
| 3 | 2-1004 | (사)범국민예의생활실천 운동본부 | 청소년예절교육프로그램 | 44 |
| 4 | 2-1006 | (사)대한민국해양연맹 | 대국민해양사상고취운동 | 40 |
| 5 | 2-1008 | (사)국가미래정책포럼 | 미래 지향적 국정운영과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미래 예측 교육 및 포럼사업 | 57 |
| 6 | 2-1017 | 한국생활안전연합 |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발생률 제로를 위한 안심프로젝트」 사업 | 67 |
| 7 | 2-1018 |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 사랑의 장기기증 문화 정착을 위한 대국민 홍보사업 | 43 |
| 8 | 2-1019 | 한글문화연대 | 한글 무늬옷 개발과 보급사업 | 34 |
| 9 | 2-1023 | 이주노동자의방송 | 이주민 문화역량강화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방송 제작 지원 | 39 |
| 10 | 2-1026 | 건강세상네트워크 | "나도 주치의를 갖고 싶다" -전국민 주치의 갖기 공감캠페인 | 33 |
| 11 | 2-1032 | 원주YMCA외3(권) | 지역커뮤니티에날개달기!작은도서관 프로젝트 | 40 |
| 12 | 2-1035 | 홍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외2(권) | 교실로 찾아가는 청소년 투명학교 및 투명강사 양성 | 21 |
| 13 | 2-1038 | 대전시민환경연구소외5(권) | 주요 광역 도시 환경조례 효율성평가 | 39 |
| 14 | 2-1041 | 한국투명성기구 | 유엔반 부패협약 지킴이 네트워크 구축 운영과 반부패 투명성 문화기반 마련사업 | 41 |
| 15 | 2-1043 (계속) | 보험소비자연맹 | 재해 사고자 장기 기증사업 | 38 |
| 16 | 2-1044 | (사)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 민의모임 | 물가 감시를 통한 서민경제 안정과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문화 구축운동 | 40 |
| 17 | 2-1045 | 한국여성민우회 | 차별 없는 나라로 프로젝트 | 50 |
| 18 | 2-1046 |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 농촌지역개발을위한도농간녹색교류및시민참여 활성화운동 | 31 |
| 19 | 2-2003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기는 문화 만들기 | 50 |
| 20 | 2-2005 | 먹거리사랑시민연합외1(권)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정착을 위한 시민사회 캠페인 | 34 |
| 21 | 2-2012 | (사)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 건강한 지역사회 교육문화 기반구축을 위한학습 및 정서지원 통합서비스사업 | 25 |

2008 민간단체 지원사업 신청서

| | | | | | |
|----------------------------------|---|--|-----|------------------------|----------|
| 신청구분 (해당 번호에 표) | ① 단년도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② 계속(다년도)사업 | | | | |
| 단체명 | (사)범국민예의생활실천운동본부 | | | | |
| 사업명 | 조손결연을 통한 우리문화 만들기 | | | | |
| 지원사업유형 (해당 번호에 표) | ① 사회통합과 평화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② 시민사회 문화기반 구축 ③ 자원봉사-NGO활동기반확대 ④ 안전문화-재해재난 극복 ⑤ 소외계층 인권신장 ⑥ 자원절약-환경보전 ⑦ 국제교류협력 | | | | |
| 총사업비 (계속사업의 경우 연차별 사업비 기재) | 총 188,344백만원 | | 보조금 | 총 140,064백만원(74.4%) | |
| | · 1차 년도 188,344백만원 | | | · 1차 년도 140,064.67백만원 | |
| | · 2차 년도 백만원 | | 자부담 | · 2차 년도 백만원 | |
| | · 3차 년도 백만원 | | | · 3차 년도 백만원 | |
| 단체등록사항 | ○ 등록부처(시·도) : 행정자치부 <등록번호 : 111> ○ 등록일 : 2005년 2월 5일 | | | | |
| 대표 단체 연락처 | 주소 | ☐☐☐-☐☐☐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3가 53번지 성균관유림회관 210호 | | | |
| | 전화 및 휴대폰 | 02)745-0921 ~ 2 | | | |
| | F A X | 02)747-4805 | | | |
| | e-mail | beecheon@yahoo.co.kr | | | |
| | 실무자 | 직 위 | 본부장 | 성 명 | 최창학(崔昌學) |

2008년 3월 11일

신청단체명 : 社團法人 汎國民禮儀生活實踐運動本部

직 인

【첨부서류】※사업신청서는 인터넷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인터넷제출 : 파일로 첨부
 - 민간단체지원사업신청서·단체자기소개서·지원사업계획서 1부.
 - ※단체자기소개서는 콘소시엄일 경우 대표단체만 제출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스캔화일 첨부)
 - ※콘소시엄의 경우 참여한 모든 단체의 등록증 사본도 첨부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단, 택배제출은 책임성 문제로 접수 불가)
 - 민간단체지원사업신청서, 단체자기소개서, 지원사업계획서 각4부
 - ※단체자기소개서는 콘소시엄일 경우 대표단체만 제출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콘소시엄의 경우 참여한 모든 단체의 등록증 사본도 첨부
 - 접수증(방문 접수시에만 접수증 발급, 단체에서 사전 작성요망)

행 정 자 치 부 장 관 귀 하

(社)범국민예의생활실천운동본부

(Nation Wide Courtesy Movement Association)

| | |
|----------------------------|---|
| <p>주 소 및 연락처</p> | <p>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 3가 53번지 (우편번호 110-523)</p> <p>○ 전화 : 02-745-0921~2 ○ 지원사업담당 : 최창학(崔昌學) ○ FAX : 02-747-4805 ○ E-MAIL : beecheon@yahoo.co.kr ○ 인터넷 홈페이지 : yejeol.or.kr</p> |
| <p>설립목적</p> | <p>○ 예의생활을 통하여 예의염치를 회복하고 윤리 도덕의식을 바로하여 풍속을 순화하고 건전한 가정과 사회의 기틀을 마련함.</p> |
| <p>단체연혁</p> | <p>○ 2002년 9월 4일 창립 ○ 2004년 9월 26일 사단법인 설립 허가</p> |
| <p>인력현황</p> | <p>○ 대표자 : 회장 강대봉(姜大奉) ○ 회원수 : 112,784명</p> <p>○ 사무국 : 14명(본부)</p> |
| <p>기구현황 및 운영실적</p> |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p>○ 예의생활실천운동 캠페인(문화관광부 중무담당관 3974) ○ 국가공인 민간자격 관리기관 승인(문화관광부 2008. 2. 17 ~ 2012. 2. 16) ○ 청소년 예절교육 71,001명 ○ 사회예절교육 31,063명 ○ 국가공인자격 ‘실천예절지도사’ 검정사업(384명 배출)</p> |
| <p>2008 예산현황</p> | <p>○ 예산총액 : 291.9백만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30.9백만원 10.2%) 기부금 및 모금활동(30.0백만원 10.2%) 정부보조(45.0백만원 15.4%) 사업수익(174.4백만원 58.7%) 기타(12.5백만 4.5%)</p> |
| <p>2008 주요사업</p> | <p>○ 『실천예절 편람』 5권 제작 ○ 국가공인자격 ‘실천예절지도사’ 검정사업(3회, 12~14회차 검정계획) ○ 국가공인 ‘실천예절지도사’ 연수(법정의무 연수자 280명) ○ 도덕성회복을 위한 ‘시범 예의생활실천운동’ 실시 ○ 회원 30만명 확보 운동 ○ 2008년도 ‘청소년 예절교육 프로그램’ (행정자치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예정) ○ 2008년도 조손결연을 통한 우리문화 만들기(행정자치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예정)</p> |

2008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보조금교부신청서 및 실행계획서

- 접수번호 : 1-1001
- 단체명 : (사)범국민예의생활실천운동본부
- 사업명 : 조손결연을 통한 우리문화 만들기

| |
|---|
| ○ 실무책임자 : 직위 : 본부장, 성명 : 최창학(崔昌學) |
| ○ 연 락 처 : 전화 02)745-0921, FAX 02)747-4805, E-mail : beecheon@yahoo.co.kr 홈페이지 : http://yejeol.or.kr/ |
| ○ 주 소 : (110-523)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3가 53번지 성균관유림회관 210호 |

(앞면)

국비보조금 교부신청서

- 유형번호 : ① 사회통합과 평화
- 단 체 명 : (사)범국민예의생활실천운동본부
- 사 업 명 : 조손결연을 통한 우리문화 만들기
- 교부신청액 : 일금오천만원(W50,000,000원)
- 신청조건 : (뒷면의)국비보조금 교부조건 수용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6조제1항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국비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08년 5월 8일

단 체 명 : (사)범국민예의생활실천운동본부

대 표 자 : 강 대 봉 ①

- 붙 임 : 1. 사업실행계획서(예산집행계획 등 포함) 1부.
2. 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3. 보조금관리통장 사본 1부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뒷면)

국비보조금 교부조건

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 항목 간 소요경비를 배분(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가.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반한 경우
 -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다.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 라.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보조금의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진행내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과 관련한 장부·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5.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결정의 내용, 교부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반환명령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6. 컨소시엄으로 사업비의 교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대표단체의 명의로 보조금을 신청하며, 보조금의 교부집행에 관한 민·형사상 책임은 대표단체 및 대표단체의 대표자가 진다.
7. 보조금의 회계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 각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사 업 실 행 계 획 서

1. 사업개요

- 접수번호 : 1-1001
- 사 업 명 : 조손결연을 통한 우리문화 만들기
- 사업기간 : 2008. 6. 1. ~ 12. 31.
- 소요예산 : 총 71,215천원 (국비 50,000천원, 자부담 21,215천원)

2. 사업목적

- 핵가족화된 사회에서 손자세대인 청소년과 어르신들의 결연을 주선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결속을 강화하여 어르신들에게는 손자 세대를 대상으로 경륜을 펼 수 있는 즐거움과 보람을 드리게 하고,
- 청소년·어르신들과 서신교환 등을 통한 우리 민족 고유의 효(孝)사상을 통한 ‘조손결연’ 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 ‘조손결연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통해 세대와 문화의 차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21세기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
- 조손결연을 통해 청소년들에게는 웃어른에 대한 공경심과 가정과 사회 국가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도록 함.
- 세계화시대에서 청소년들과 어르신들의 조손결연을 통해 청소년들은 조상의 슬기와 경로효친의 참뜻을 이해하고 장래에 대한 올바른 진로를 설정하도록 함.

3. 주요사업내용

1) 사업추진 대상 설정

■ 사업추진 대상(Target) 선정

① 청소년

- 16개 시도 교육청 협조를 통해 각급 학교에서 결연을 희망하는 청소년 추천
-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한 청소년으로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
- 청소년단체 및 관련행정기관의 추천을 받은 청소년
- 할아버지·할머니와 결연을 희망하는 청소년
- 소년·소녀가장으로 결연을 희망하는 청소년

② 어르신

- 사회적으로 검증된 덕망있는 인사들로 구성
- 60세이상 할아버지·할머니로서 덕망 있는 어르신
- 대인관계에 있어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는 어르신
- 청소년들에게 본받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어르신
- 청소년 교육 및 예절교육 지도자로서 50세 이상인 남·여
- 청소년단체·기관·수련시설 등의 청소년 지도자로서 50세 이상인 남·여
- 복지시설 등의 실무자로서 50세 이상인 남·여

※ 자격 제한 요건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조손결연 참여인원 : 3,000명(청소년 : 1,500명 어른신 : 1,500명)

| 구분 | 지역 | 청소년 | 어르신 | 비 고 |
|-----|---------|-----|-------|-----|
| 1 | 서울특별시 | 150 | 150 | |
| 2 | 부산광역시 | 100 | 100 | |
| 3 | 인천광역시 | 100 | 100 | |
| 4 | 대전광역시 | 100 | 100 | |
| 5 | 대구광역시 | 100 | 100 | |
| 6 | 광주광역시 | 100 | 100 | |
| 7 | 울산광역시 | 100 | 100 | |
| 8 | 경기도 | 100 | 100 | |
| 9 | 강원도 | 80 | 80 | |
| 10 | 충청남도 | 80 | 80 | |
| 11 | 충청북도 | 80 | 80 | |
| 12 | 전라남도 | 80 | 80 | |
| 13 | 전라북도 | 80 | 80 | |
| 14 | 경상남도 | 100 | 100 | |
| 15 | 경상북도 | 100 | 100 | |
| 16 | 제주특별자치도 | 50 | 50 | |
| 소 계 | | 0 | 1,500 | |

■ **결연 지역 결정**

- 결연본부는 사회통합의 대원칙을 고려하여 결연을 희망하는 청소년과 어르신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닌 타 지역을 결연 1순위로 결정 통보한다.
- 결연을 신청한 지역이 예상외로 저조할 때는 본부장의 재량으로 결연 예상지역을 수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일부지역을 모델로 결정하여 청소년과 어르신간의 결연을 추진할 수 있다.

※ 청소년·어르신 결연 예상 지역표

| 구분 | 청소년 | 어르신 | 비고 |
|----|----------|----------|----|
| 1 | 서울·경기(북) | 대구·경북 | |
| 2 | 인천·경기(남) | 청주·충북 | |
| 3 | 대전·충청 | 강원도 | |
| 4 | 전주·전북 | 제주도 | |
| 5 | 광주·전남 | 부산·경남 | |
| 6 | 대구·경북 | 서울·경기(북) | |
| 7 | 청주·충북 | 인천·경기(남) | |
| 8 | 강원도 | 대전·충청 | |
| 9 | 제주도 | 전주·전북 | |
| 10 | 부산·경남 | 광주·전남 | |

2)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1) 결연본부 개설 운영

○ 사업내용

- 사업기획 및 추진, 결연신청서 접수, 결연심의위원회 운영, 결연자 관리를 위한 인적 네트워크 구성(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 청소년·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정보 안내 및 제공
- 운영기간 : 2008. 6. 1 ~ 2008. 12. 31

○ 추진방법

- 조손결연사업 활성화를 위해 ‘조손결연을 통한 우리문화 만들기’ 본부 운영 (직원 : 5명 자원봉사자 : 10명)
 - 직원 : 결연업무 관리(결연업무총괄 및 자원봉사자의 업무관리)
 - 자원봉사자 : 결연청소년·어르신을 지역단위로 진행상황을 관리.
(결연상태의 점검 확인 및 촉진)
- 한국청소년상담원과 파트너십 관계를 구축하여 청소년·어르신·학부모들이 지속적으로 상담컨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 조손결연을 위한 국내외의 덕망있는 인사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 후원활동 역할 부여(실천예절지도사 3,000명 활용)

(2) 매뉴얼 교육

○ 사업내용

- 교육대상자 : 본 사업에 결연을 희망하는 어르신.
- 청소년문화에 생소한 어르신들에게 청소년문화를 소개하고 이해하게 함으로써 결연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청소년 상담이론 교육
- 편지, 이메일을 쓰는 요령, 전화하는 요령과 기초예절 등을 교육
- 결연에 필요한 매너 및 규약에 대한 교육 실시
- 교육특전 : 교재 및 기념품 증정, 수료증 발급

○ 추진방법

- 교육기간 : 2008. 7. 1 ~ 2008. 8. 10
- 교육시수 : 3시간 운영
- 청소년문화 및 결연을 위한 안내 매뉴얼 제작
- 관련분야 저명강사 초청 예정

(3) 조손결연 네트워크 구축

○ 사업내용

- 청소년과 어르신들이 서신교환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 우리민족 고유의 효(孝)사상을 통한 '조손결연' 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조손결연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 세대와 문화의 차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21세기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 우리민족이 가지고 있는 효(孝)사상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홍보할 수 있는 사업임.
- 조손결연 네트워크 구축은 조손결연 사업을 매년 진행되는 사업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별도의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이 필요함.

○ 추진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운영

- 구축기간 : 2008. 6. 1 ~ 2008. 7. 25
- 개발 및 운영관리 : 외부 용역
- 다양한 효친사례 및 조손결연에 따른 상담관련 콘텐츠 등 구축
- 결연자를 위한 홈페이지 및 카페 등 서비스 구축
- 홈페이지에 결연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시판 개설 상시 운영

▶ e-Book 시스템 구축

- 구축기간 : 2008. 6. 1 ~ 2008. 7. 25
- e-Book 시스템 구축 : 외부 용역
- 조손결연 수기집 등을 e-Book형태로 개발
- 청소년·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자료들을 발굴, e-Book 시스템을 통해
- 지속적인 공급을 통해 조손결연사업의 정착을 위한 기초를 세움.

(4) 조손결연 수기 공모전

○ 사업내용

- 친구세대간의 교유사례와 청소년과 어르신세대의 문화적인 차이를 통해, 21세기 조손 결연프로그램 정착 및 확산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 한민족의 우수성을 지구촌에 홍보
- 한민족이 가지고 있는 효(孝) 문화컨텐츠를 전파할 수 있는 계기
- 응모기간 : 2008. 9. 1 ~ 2008. 10. 10
- 심사기간 : 2008. 10. 15 ~ 2008. 10. 30
- 발표일자 : 2008. 11. 5
- 대상자 : 결연에 참여하는 청소년 및 어르신
조손결연에 참여하고 싶은 초중고생 및 일반인
- 시상내용 : 대상 1명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5명

○ 추진방법

- 인터넷을 활용한 조손결연 수기 공모전 개최(이메일 및 효친게시판 활용)
- 조손결연 수기 등을 우편 및 팩스 등으로도 접수
- 결연자들에게 행사 안내 메일 발송 및 홈페이지에 안내문 게시
- 공모전에 참여한 우수작품을 책자로 발간하고
- 대내외에 배포, 효친사업을 홍보하고 관계기관에 우수도서 출품(e-Book 형태로도 제작)

(5) 가정교육 세미나

○ 사업내용

- 위기의 가정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가정교육 세미나 실시
- 조부모의 역할, 손자세대의 갈등을 극복하는 방법 제시
- 핵가족시대에서 아름다운 가정 만들기
- 다문화사회에서 효(효)의 실천 방안 제시
- 가정위기 극복 방안 제시

○ 추진방법

- 참석대상 : 결연참여 어르신, 청소년, 학부모, 일반시민, 전문기관 관계자 등
- 교재부수 : 1,100권
- 행사일자 : 2008. 11.
- 시간 : 4시간
- 가정문제 전문가 섭외 및 초청
- 가정교육 전문가 및 저명강사의 강연
- 위기의 가정극복을 위한 전문가 토론

(6) 만남의 날 축제

○ 사업내용

- 청소년들과 어르신들에게 만남의 시간을 통해 대화와 친교를 나누고 우의를 돈독하게 하며 조손간의 정을 나누는 시간
- 만남의 극적효과를 통하여 추억을 공유함
- 한마음 놀이마당(공연) 및 아쉬운 헤어짐(기념촬영)
- 조손결연의 의미와 성과 및 행사과정에 대한 소개
- 청소년·어르신 결연자들의 상호 소개 및 축하 인사
- 참석대상 : 청소년·어르신(500여명), 축하객 및 행사 참여인원(200명)
- 행사일자 : 2008. 12. 26
- 행사장소 : 성균관대학교 또는 종로구 구민회관

○ 추진방법

- 전담인력 : 결연본부 직원 및 자원봉사자
- 홍보 : 신문·방송 등 언론사에 행사 보도 협조공문 발송
- 이벤트 행사 및 관련업체 등에 사전에 협조공문 발송 및 섭외 등을 통한 본 사업의 취지와 의미에 동참할 수 있는 업체의 지원 및 협력 요청

4. 세부 추진계획

| 추진시기 | 세부 사업내용 | 비 고 |
|----------------|---|-----|
| 2008. 6. ~ 12. | ■ 결연본부 개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연신청서 배포 및 접수 ○ 결연정보 안내 및 제공 ○ 심의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구성 ○ 결연자 관리 | |
| 2008. 7. ~ 8. | ■ 매뉴얼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연 어르신을 위한 청소년 문화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재 및 기념품 준비 - 수료증 수여 | |
| 2008. 6. ~ 7. | ■ 조손결연 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게시판 / 카페 / 결연관련 컨텐츠 - 상담컨텐츠 제공 ○ e-Book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연수기집 등을 e-Book 형태로 개발 - 청소년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자료들을 발굴하여 e-Book 형태로 제공 | |
| 2008. 9. ~ 11 | ■ 조손결연 수기 공모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손결연 수기 공고 ○ 홍보 브로슈어, 포스터 제작 ○ 작품 접수, 심사위원회 개최, 통보 ○ 시상식, 수기집 발간(관계기관에 우수도서 출품) 및 e-Book 형태로 제작 | |
| 2008. 11. | ■ 가정교육 세미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미나 공고 및 접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부모의 역할 / 손자세대의 갈등 - 핵가족시대에서 아름다운 가정 만들기 - 다문화사회에서孝(효)의 실천 - 가정위기 극복 방안 | |
| 2008. 12. 26 | ■ 만남의 날 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소대여, 무대설치 ○ 초청장 발송, 홍보, 기념품준비 | |

- ★ 금회 보조금 전액 교부 여부 : 전액교부 2회 분할교부(상반기80%+하반기20%)
- 08년 9월 예정인 중간평가 이전에 보조사업이 완료되는 일회성 행사 등에 대한 보조금은 금회 전액 교부 표시

5. 기대효과

- 청소년과 어르신들이 조손결연을 통하여 신구세대간의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孝(효)와 親(친)의 사상을 몸으로 체득하고 상이한 세대 차이를 이해하며 극복할 수 있다.
- 청소년들은 어르신들의 연륜과 풍부한 경험을 알게 됨으로써 어르신들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 어르신들의 풍부한 연륜과 경험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가치관 정립에 이바지함으로써 고령사회의 정신적 공허를 딛고 사회 구성원 및 민족구성원으로서 매우 큰 역할을 하게 된다.
- 가정, 학교, 사회를 연계한 효친실천운동의 확대에 의해 우리 사회의 보호대상인 노년층과 청소년층을 연결하는 통로가 구축된다.
- 경로효친(敬老孝親) 사상이 학문적인 틀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실천하게 됨으로써 사회적으로는 세대 갈등이나 계층 갈등의 소지를 없애고 사회통합과 평화 정착에 기틀을 마련하며 한국인의 우수성을 지구촌에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 산업화 및 정보화 등으로 인해 커뮤니케이션이 단절되어 가는 사회에서 우리 민족의 조상들이 계승발전해온 효(孝)문화를 청소년과 어르신들이 공유함으로써 인성과 예의염치를 생각하게 하며 건전한 풍속의 기초를 다지게 된다.
-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는 ‘조손결연을 통한 우리문화 만들기’ 사업은 우리단체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예의생활실천운동의 하나로서 사회곳곳에 예의염치를 뿌리내리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 (사)범국민예의생활실천운동본부에서는 우리민족 고유의 문화적인 전통 및 효와 예절관련자료들을 ‘조손결연을 통한 우리문화 만들기’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 및 각급 학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문화적인 가치가 전달될 것으로 예상된다.

- 참고자료 -

1. **결연자 참고자료 【청소년】**
2. **결연자 참고자료 【어르신】**
3. **보도자료**

1. 결연자 참고자료 【청소년】

1) 청소년 자료

◦ 사업취지

사단법인 범국민예의생활실천운동본부(회장 강대봉. 이하 '예실본'이라 한다.)가 행정안전부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조손결연을 통한 우리문화 만들기' 사업은 핵가족화된 사회에서 손자세대인 청소년과 어르신들의 결연을 주선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결속을 강화하여 어르신들에게는 손자세대를 대상으로 경륜을 펼칠 수 있는 즐거움과 보람을 드리는 사업입니다.

청소년과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하여, 청소년은 경로효친(敬老孝親)의 정신을 익히고 어르신들은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한 민족적 사회 실천운동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 예실본은 6월중 '조손결연본부'를 발족하고 청소년과 어르신들의 결연(結緣)을 적극 주선하여 상호간에 편지, 이메일, 결연본부의 홈페이지(www.hyochein.or.kr) 게시판 등을 통한 대화 등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케이션활동을 하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세계화시대에서 청소년들과 어르신들의 조손결연을 통해 청소년들은 조상의 슬기와 경로효친의 참뜻을 이해하고 장래에 대한 올바른 진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며 우리의 전통 가정문화를 유지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한국인이라는 민족적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 사업개요 및 일정표

- 사업명칭 : 조손결연을 통한 우리문화 만들기

- 지원부처 : 행정안전부 2008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승인유형번호 : ① 사회통합과 평화 1-1001 민관협력과(2008. 5. 1)
- 사업주체 : 사단법인 범국민예의생활실천운동본부
- 주관부서 : 조손결연본부
- 사업일정

| 추진시기 | 사업내용 |
|--------------------|--------------------|
| 2008. 6. ~ 12. 30 | 결연본부 개설 운영 |
| 2008. 7. | 1차 어르신 사업설명회 개최 |
| 2008. 8. | 2차 어르신 사업설명회 개최 |
| 2008. 7. 1 ~ 7. 15 | 홈페이지 네트워크 구축 및 서비스 |
| 2008. 9. 1 ~ 11. 5 | 효친수기 공모전 |
| 2008. 11. | 가정교육 세미나 |
| 2008. 12. 26 | 만남의 날 축제 |

• 연 락 처 : ☎ 110-523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3가 53번지 성균관유림회관 210호
 조손결연본부
 전화 : (02)745-0921 ~ 2, FAX : (02)747-4805, 3672-4805
 홈페이지 : yejeol.or.kr
 E-mail: beecheon@yahoo.co.kr

【 보호자님에게 】

○○○ 학생 보호자님에게 드립니다.

서면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보내드린 자료와 같이 우리 단체는 정부(행정안전부)의 예산으로 이 사업을 승인 받아 청소년과 어르신을 친할아버지와 친손자 관계처럼 교류할 수 있도록 결연을 주선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청소년과 어르신들을 결연하여 서신교류 등을 통해 우리의 전통 가정문화를 유지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한국인이라는 민족적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효와 예절’을 청소년 및 어르신들과의 교류를 통해 노인의 소외문제와 청소년의 인간관계에 대한 정서적 소외를 해소하는 일을 하는 사업입니다.

자녀가 새로 맞이하는 할아버지와 많은 서신과 전화를 통하여 친할아버지·친할머니처럼 친밀해지고 어르신의 풍부한 경험과 훌륭한 인품으로 선도된다면, 우리 사업이 추구하는 대한민국 대가족이 가능하며 사회로부터 한 발 비껴 있는 어르신과 청소년이 활기찬 사회 구성원으로 서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조손결연’을 통해 전통가정 문화의 자애와 효도를 바탕으로 인간관계의 조화를 이루어 ‘사회통합과 평화’라는 새로운 사회 기풍을 일구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보호자님!

교류를 지켜봐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도하여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내내 강녕하심을 기원합니다.

2008년 6월 일

청소년·어르신 사랑의 결연본부
본부장 최창학 드림

【 할아버지 / 할머니 소개 】

할아버지·할머니 를 소개합니다.

○○○ 에게 할아버지·할머니를 소개하는 일은 나로서는 큰 기쁨이자 보람입니다.
학교공부도 바쁠텐데 이처럼 좋은 뜻을 보내주어 더욱 고맙습니다.

소개할 할아버지·할머니의 존함과 사시는 곳, 연세, 연락처 등은 아래에 적었습니다.

우리 단체는 정부(행정안전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아서 많은 인생경험과 훌륭한 인품을 갖추신 어르신과 학생처럼 할아버지(할머니) 모시기를 희망하는 청소년들을 새로운 가족처럼 교류할 수 있도록 맺어주고 도와주는 일을 실천하는 단체입니다.

학생의 부모님도 청소년 시절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고모들과 한 집안에 살면서 일가 어른들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면서 자라왔고, 또 어른들을 공경하고 효도하면서 가정생활속에서 삶의 지혜를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아들 딸로 구성된 핵가족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웃어른의 사랑과 돌봄을 받지 못하고, 청소년 시절을 외롭게 지내는 것이 보통입니다.

정부가 우리 단체에 이 사업을 승인한 것은 세상의 할아버지·할머니의 높은 인품과 풍부한 경험으로 학생에게 친손자 친손녀처럼 사랑하고 학업과 장애문제 그리고 학생의 고민까지도 친구처럼 도와주고 사람의 도리를 일깨워서 우리의 전통적인 가정문화를 가꾸어 가도록 하자는데 있습니다.

이런 뜻을 잘 생각하여 밝은 세상이 되도록 새로 맞이하는 할아버지·할머니와 좋은 관계로 발전시켜 주기 바라며, 9~10월에 실시하는 체험수기 공모에도 꼭 좋은 경험을 글로 써서 보내주기 바랍니다.

12월 하순에는 학생과 같은 많은 손자 손녀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한자리에 모여 '잔치마당' 을 벌일 것입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생활하시기 바라면서 이만 줄입니다.

소개드릴 할아버지 ○○○와 청소년 ○○○의 자료

| | | | | | | |
|-----|-----|--|------|--|-----|--|
| 어르신 | 성 명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 주 소 | | | | | |
| 청소년 | 성 명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 주 소 | | | | | |
| | 보호자 | | 학교 | | | |

2008년 6월 일

청소년·어르신 사랑의 결연본부

본부장 최 창 학 드림

【 청소년의 기본자세 】

청소년이 아래와 같은 몸가짐을 갖추면 품위 있고 멋스러워집니다!

- 결연 어르신을 대할 때는 항상 친할아버지 친할머니라고 생각하고 예의를 갖춘다.
- 어르신에게 과도한 부탁이나 금전적인 요구를 하지 않는다.
(예, 게임이나 여행, 기타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금전 등을 요구하는 행위)
- 어르신에게 편지쓰기나 인터넷을 통한 메일을 전송할 때는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웃어른에 대한 공경심을 표현한다.
- 어르신들과 교류하면서 어르신들이 인터넷 등 신세대들이 사용하는 언어 등 이해가 어려운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 청소년 본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이 있으면 솔직하게 어르신들에게 상담을 요청하고 자문을 구한다.
- 어르신들이 지켜온 전통예절 및 민족문화에 관심을 갖고 우리고유문화의 발전에 노력한다.
- 매월 정기적으로 결연을 맺은 어르신과 서신 및 메일, 전화 등을 사용해서 연락하며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때는 결연본부로 연락한다.
- 어르신들이 들려주는 고운마음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명언이나 속담 기타 격언들을 관심있게 듣고 일기 및 기록노트 등에 정리하여 둔다.
- 욕설 및 외래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가능한 아름다운 우리말을 사용하려고 노력한다.
- 예절에 어긋나는 음주 및 흡연 등을 절제하며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한다.

2. 결연자 참고자료 【어르신】

1) 어르신 자료

◦ 사업취지

사단법인 범국민예의생활실천운동본부(회장 강대봉. 이하 ‘예실본’이라 한다.)가 행정안전부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조손결연을 통한 우리문화 만들기’ 사업은 핵가족화된 사회에서 손자세대인 청소년과 어르신들의 결연을 주선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결속을 강화하여 어르신들에게는 손자세대를 대상으로 경륜을 펼칠 수 있는 즐거움과 보람을 드리는 사업입니다.

청소년과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하여, 청소년은 경로효친(敬老孝親)의 정신을 익히고 어르신들은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한 민족적 사회 실천운동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 예실본은 6월중 ‘조손결연본부’를 발족하고 청소년과 어르신들의 결연(結緣)을 적극 주선하여 상호간에 편지, 이메일, 결연본부의 홈페이지(www.hyochein.or.kr) 게시판 등을 통한 대화 등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케이션활동을 하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세계화시대에서 청소년들과 어르신들의 조손결연을 통해 청소년들은 조상의 슬기와 경로효친의 참뜻을 이해하고 장래에 대한 올바른 진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며 우리의 전통 가정문화를 유지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한국인이라는 민족적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 사업개요 및 일정표

- 사업명칭 : 조손결연을 통한 우리문화 만들기
- 지원부처 : 행정안전부 2008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승인유형번호 : ① 사회통합과 평화 1-1001 민관협력과(2008. 5. 1)
- 사업주체 : 사단법인 범국민예의생활실천운동본부
- 주관부서 : 조손결연본부

· 사업일정

| 추진시기 | 사업내용 |
|--------------------|--------------------|
| 2008. 6. ~ 12. 30 | 결연본부 개설 운영 |
| 2008. 7. | 1차 어르신 사업설명회 개최 |
| 2008. 8. | 2차 어르신 사업설명회 개최 |
| 2008. 7. 1 ~ 7. 15 | 홈페이지 네트워크 구축 및 서비스 |
| 2008. 9. 1 ~ 11. 5 | 효친수기 공모전 |
| 2008. 11. | 가정교육 세미나 |
| 2008. 12. 26 | 만남의 날 축제 |

- 연 락 처 : ☎ 110-523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3가 53번지 성균관유림회관 210호
조손결연본부
전화 : (02)745-0921 ~ 2, FAX : (02)747-4805, 3672-4805
홈페이지 : yejeol.or.kr
E-mail: beecheon@yahoo.co.kr

【 청소년 소개 】

○○○ 를 소개합니다.

결연에 참여해주신 어르신의 건강하심을 양축합니다.

우리 단체가 진행하고 있는 ‘조손결연을 통한 우리문화 만들기’ 사업에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개드릴 ○○○ 의 성명과 사는 곳 그리고 나이 연락처 등은 아래에 적었습니다.

저희는 학생의 보호자님께도 서신을 보내어 어르신과 학생이 어르신과 청소년의 관계로 결연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어르신께서 훌륭하신 경력과 인품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의 취지를 정리하여 새로 맞이하는 청소년의 관심사에 대하여 자애로움으로 좋은 길을 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혹시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지체없이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화, 서신, 만남등의 방법으로 교류한 경험을 글로 써서 ‘체험 수기 공모’에 보내주시기 바라며, 12월 하순에 있을 한마당 모임 잔치에서 뵙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내내 좋은 손자손녀로 길러주시기 바라면서 어르신의 건안을 빕니다.

소개드릴 할아버지 ○○○와 청소년 ○○○의 자료

| | | | | | | |
|-----|-----|--|------|--|-----|--|
| 어르신 | 성명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 주소 | | | | | |
| 청소년 | 성명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 주소 | | | | | |
| | 보호자 | | 학교 | | | |

2008년 6월 일

청소년·어르신 사랑의 결연본부

본부장 최창학 드림

【 어른님께서 참고하실 자료 】

① 결연 어른신의 자질 및 역할

- 결연에 참여하는 어른신은 청소년들에게 웃어른에 대한 공경심과 가정과 사회 국가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 결연에 참여하는 어른신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친자손처럼 사랑과 정성을 가지고 대할 수 있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또한 청소년들의 인성과 능력 함양 및 교육적 효과 등을 고려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봉사지도 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결연에 참여하는 어른신이 갖추어야 될 일

㉠ 포용력과 리더쉽

결연 청소년을 직·간접으로 대면할 때는 원만한 성품과 리더쉽이 필요하다. 업무 자체가 대인관계에 기초하므로 철저한 자기 절제와 관리 능력이 있어야 하며, 동시에 친화력을 가지고 이끌어 가는 원만한 성품이 요구된다.

㉡ 청소년에 대한 이해심

청소년을 탐구하는 기회를 많이 갖고 편견과 차별 없이 청소년을 이해하며 이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인간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있어야 한다.

㉢ 통찰력

청소년을 대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수정하고 상담자 역할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상황에 알맞게 대처할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하다. 다음과 같은 자질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을 지닌 사람
- ▶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 ▶ 솔선수범하고 책임감, 신념이 있는 사람

- ▶ 창의성, 유머감이 있는 사람
- ▶ 지혜로운 판단력과 지도력을 갖춘 사람
- ▶ 용기있는 사람
- ▶ 계획성과 추진력을 갖춘 사람
- ▶ 긍정적인 태도와 시각을 가진 사람(적극적 자세)
- ▶ 세심한 배려를 할 수 있는 사람
- ▶ 개인의 능력을 발굴해서 그에 맞는 일감을 줄 수 있는 사람
- ▶ 몸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 ▶ 항상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는 사람
- ▶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
- ▶ 인내심이 있는 사람
- ▶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 사람
- ▶ 합리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

이러한 요건을 모두 갖추기는 어렵지만, 요건을 갖추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③ 결연 어르신의 역할

결연에 참여한 어르신은

- 청소년들에게 정기적인 편지(이메일 포함)와 전화 등을 통해,
- 청소년들에게 기초예절과 미래의 주역이라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 청소년들이 조상의 슬기와 경로효친에 대한 참 뜻을 이해하고,
- 장래에 대한 올바른 진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④ 결연 어르신 10대 행동강령

**본 행동강령은 결연에 참여하는 어르신이 스스로 지켜야 할 계율입니다.
잘 지켜 도덕성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 (1) 대한민국의 예절교육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Certified Volunteer)라는 자긍심을 갖는다.
- (2) 학부모 및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도록 자원봉사자 스스로 자기관리를 철저히 한다. (도덕성)
- (3) 청소년을 대할 때에는 자원봉사자로서 기본예절 지키고 책임감을 갖는다.

- (4) 봉사감동이 보상임을 인식하고 보상받을 목적으로 활동하지 않는다.
- (5) 활동과정에서 알게된 사항은 기밀 유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출하지 않는다.(보안성)
- (6) 특정 단체를 비방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 (7) 특정 정당이나 종교단체를 옹호하는 행위를 일절 하지 않는다.
- (8) 회원간 우정·친선·유대·우의를 돈독히 하고, 종교와 지역을 분별 않는다.
(비종교, 비지역)
- (9) 이메일 및 편지(서신)를 사용하여 회원간의 연락과 정보화사회에 참여한다. (정보화)
- (10) 결연본부 홈페이지(<http://www.hyochein.or.kr>)를 주2회 이상 검색, 정보획득과 연락체계 유지한다.

⑤ 청소년의 개념

- 청소년 기본법 : 9세 이상 19세 이하의 청소년
- 민 법 : 19세 미만

그러나 상식적 수준에서 인간발달단계에서 볼 때 보호자의 보호와 의존을 필요로 하는 아동기와 사회생활이 전제되는 성인의 중간시기로 사춘기인 11~13세에서 성인 진입기인 19세까지의 인생의 한 성장기를 거치며 생활하는 사람을 총칭하여 ‘청소년’이라 보고 있다.

청소년기의 개념을 정리해보면

- 첫째, 연령적으로 구분하면 아동기와 성인기 사이의 중간시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 둘째, 청소년 단계는 각자의 개인성장 속도에 따라 다르나 하나의 일반적인 변화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⑥ 청소년의 특성

청소년의 신체적 발육은 이전보다 더 빨라지고 있는데 비하여, 이러한 새로운 세대에 성인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하는 시기는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사회에 있어서 생리적 과정과 사회화 과정의 이러한 격차현상이 청소년기의 사회심리적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청소년들은 가족으로부터 점차적으로 독립하고자 하는 욕구를 갖고 있으며, 모든 권위를 부정하고 간섭을 배제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독립할 능력이 없다는 것에 답답해하고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사려 깊은 어른과 같았다가도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하는 등 불안정한 상태를 보인다. 이러한 불안정한 상태가 배타적이고 자신과 다른 의견에 대해 비관용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자신이 수용되고 있다는 확신일 때는 자신의 방어의 벽을 헐어버린다.

㉠ 청소년기는 자아개념이 형성되는 시기

청소년 발달과정에서의 긍정적인 경험은 자신감을 갖게 하고, 부정적인 경험은 부정적인 자아상을 만든다.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졌을 때는 행동에 안정감과 자신감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졌을 때는 자존심도 상실하고 사회적인 접촉을 피하고자 한다.

자아개념은 학문적 자아개념, 정서적 자아개념, 신체적 자아개념으로 구성되어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청소년들이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영역이 제한되어있다. 청소년기에 이르러서 자신의 자아개념을 형성하는데 그 평가기준이 부모에서 교사 그리고 친구로 바뀐다.

㉡ 청소년기에는 가치관으로 고민하기 시작

청소년들은 추상적인 사고가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되어 ‘삶·죽음·고독·감·종교’ 등에 대해 생각해 보고, 기성세대의 가치관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며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무조건 순종’ 을 거부하고 순수함, 완벽성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인다. 때로는 그들이 모델로 삼은 사람들의 ‘이율배반적’ 인 행동에 대해 쉽게 배신감을 느끼고 분노한다.

㉔ 청소년기는 반항심이 강한 시기

청소년기의 반항성은 성인들로부터 자신의 가치체계나 행동을 수용·인정받지 못하고 거부당함으로써 생겨나는 저항의 표현인 것이다. 초등학교 때는 부모와 교사의 말을 그대로 따르지만 사춘기 때부터는 이유를 달기 시작하고 말대꾸를 시작한다.

강요·강압을 싫어하고 무조건적인 복종을 하지 않으며 어른들의 행동에 대해서 나름대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종종 기성세대와 충돌을 일으킨다. 기성세대가 자신의 가치에 맞지 않는 관습·가치·제도 등을 강요할 때 청소년들은 자기만의 세계를 찾아 같은 생각을 가진 또래집단으로의 소속이나 가출 같은 일탈로 발전하기 쉽다.

이때를 ‘이유 없는 반항기’ 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신적인 홀로서기의 과정으로 이해해 준다면 청소년들이 서서히 합리적인 판단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㉕ 청소년기는 열등감이 강한 시기

청소년들은 쉽게 절망감을 느끼기도 한다. 부모의 과중한 염려·기대에 의해 힘들어하기도 한다. 또한 부모의 의미 없는 습관적인 말에도 상처를 받을 수 있다. 부모의 강요나 관심이 심해져서 도저히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기도 한다.

외모 때문에 고민하는 경우, 자기 현실을 과장해서 보거나 헛된 꿈에 근거해 열등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남·여 모두 또래와 비슷하게 보이길 원하는데 특히, 성숙이 늦은 남아는 자신을 부적절하게 느끼고 스스로 거부되거나 지배되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㉖ 고독한 청소년

청소년들은 자신이 어른들로부터 이해를 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많이 갖는다.

“우리들 입장에서 좀더 이해해 주세요.”, “나의 인격과 의견을 인정해 주고 믿어주세요.” 하는 바람을 전체 청소년의 약 1/4정도가 갖고 있다. 특히 친구관계를 형성하는데 소극적인 경우 고립감을 더욱 느낀다.

㉞ 또래집단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다.

청소년들은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하나의 인간으로 자립하고 싶지만 혼자 산다는 것은 아직 외롭고 불안한 시기이다. 그래서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친구를 찾게 되고 또래집단에 끼고 싶어한다. 이때 청소년들은 소속된 집단의 가치관에 거의 맹목적으로 동조하고 부모나 성인들의 행동 유형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참교육상담소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친구 문제로 고민을 호소하는 비율이 25%나 되고 있다.

㉟ 이성친구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다.

청소년기가 되면 성 의식이 발달함에 따라 이성친구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다.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이성에 대한 그리움이 생기고 이성을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한다. 한 번도 이야기해 보지 못한 여학생, 남학생이 그리워 속을 끓이기도 하고 성적인 꿈과 환상 속에서 여러 가지 성행동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갑자기 변해 가는 자신의 신체적 변화와 성충동 때문에 스스로 불안해하거나 고민을 한다.

㊱ 신세대청소년 문화의 이해

청소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문화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청소년 문화란 다음과 같은 사회 심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㊲ 정보 사회적 행동양식

그저 일하거나 단순히 규칙이나 규정을 지키며 일하는 수준에서 탈피하여, 새롭게 다르게 사고하고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컴퓨터세대의 청소년들은 인간관계는 소홀히 하고 자기만족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부족한 편이다.

㊳ 창조적 파괴현상

기득권의 파괴, 학력파괴, 가격파괴, 조직파괴, 성(性)파괴 등등 파괴과정에서 안정과 균형의 단절로 인해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그에 따른 희생자들이 나타난다.

㉔ **배제주의가 지배하는 문화**

원활한 의사소통의 가능성이 단절되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있어 자신의 환경과 능력에 맞는 어떤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자신의 처지로 미루어 가능성이 없는 것부터 지우고,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몇 가지의 선택안 중에서 사회적 평판이 괜찮은 것을 건지는 식의 행동양식이 지배하고 있다. 이런 배제주의가 지배하는 문화 속에서 패배는 치명적이며, 배제의 시점이 빠르면 빠를수록 더욱 큰 희생을 치르게 된다.

㉕ **이중적 적응문화**

청소년들은 바깥사회의 소비공간을 전전하며, 학교와 가정의 쳇바퀴 문화를 거부하면서도 바깥사회의 규범을 유지하려고 애쓴다. 바깥사회에서의 삶의 공간은 사회적으로 인정된 공간이라기 보다는 청소년들이 비집고 들어간 도피적 공간이다.

이런 이중적 공간에서 적응노력 결과 인간이 의지하고 따라야 할 합리적 원리나 계획은 별 의미가 없다. 청소년들은 소비대상으로 포착되어 끊임없는 유혹에 부추김 받고 있으며, 아이들은 튀는 것을 미덕으로 공유하기도 한다.

즉,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학교, 가정, 바깥사회의 소비공간, 대중매체 등 여러 영역간에 상호 괴리, 분열, 결탁 상태 안에서 갈등하고 정신분열적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㉖ **유별난 표현·언어적 진술**

청소년들은 유별난 표현, 언어적 진술을 통해 서로의 의미를 주고받는다. 청소년들의 은어는 청소년들의 내부를 밖에서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만들어낸 언어적 장벽이다.

㉗ **문화의 이질화**

신세대 문화는 내부적으로 매우 이질화되어 가고 있다. 제도적 이탈자와 순응자, 유행 선도집단과 추종집단, 하이틴과 로우틴, 남자와 여자 등으로 분화 되어 가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분화가 진행되어 갈수록 현대사회의 파괴적 경향과 발 맞추어 큰 혼란을 야기할 지도 모르고, 다시 하나가 되기란 어려워진다. 예를 들어 ‘범생이’와 ‘날라리’의 문화적 이질화는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 판단중지의 세대, 개성적 물개성 세대, 현실만족 추구 세대

대중매체에 아기 때부터 익숙해 있는 신세대는 빨리 빨리 돌아가는 화면처럼 생각하며, 판단하기보다 보이는 것을 바로 믿고, 즉흥적이기 쉽다.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유난히도 연예인이나 스포츠맨 같은 인기인을 영웅시하는 경향이 생겨났다. 그들의 행동이나 언어·복장을 모방하고 싶어하며 지나치게 유행에 민감하다.

즉, 신세대는 어디에 깊이 빠지지 않으며 빠져도 쾌락적인 것에 빠지기 쉽다. 내가 즐거우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기 기분에 따라 행동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즉흥적이고 감각적·감정적이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청소년 문화의 폭과 내용 결정은 청소년이 아닌 성인들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성인들은 청소년의 진로, 문화의 방향을 현실 감각적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청소년 문화를 소비지향적이며 쾌락적이고 감각적인 문화로 조장하고 있다.

우리는 청소년 문화를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 것인가?

현실에서 청소년 문화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청소년 문화는 비행의 길에 접어든 극히 일부 청소년들에 의해 향유되는 사회병리적인 문화일 뿐이다라는 부정적 시각에서 벗어나 청소년기에 접어든 모든 청소년들이 그들의 생활을 통해서 배우고 습득한 것을 그들의 표현 방식대로 표현하고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볼 때, 보다 바람직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문화 형성에 기성세대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청소년들에게 놀이의 방법과 장소를 제공하면서 청소년들만의 동질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기성세대의 책임이다.

3. 보도자료(청소년·어르신 사랑의 실천결연사업 실적보도)

| 구분 | 언론사 | 일자 | 제 목 |
|----|---------|--------------|---|
| 1 | 연합뉴스 | 2005. 10. 27 | 할아버지-손자 맺어줘요 |
| 2 | 문화일보 | 2005. 10. 27 | “도덕성 상실 더 두고볼 수 없어” |
| 3 | 한국일보 | 2005. 10. 28 | 나도 할아버지가 생겼습니다^^ |
| 4 | 연합뉴스 | 2005. 12. 26 | 새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자 손녀의 만남 |
| 5 | KBS 뉴스 | 2005. 12. 26 | 청소년과 어르신들의 만남의 자리 마련돼 |
| 6 | 동아일보 | 2005. 12. 27 | ‘청소년-어르신 사랑의 결연’ 5개월만에 첫 만남 |
| 7 | CBS 라디오 | 2005. 12. 27 | “정범구의 뉴스매거진 오늘” 사랑의 조손(祖孫) 맺기운동을 아시나요? |
| 8 | 어린이동아 | 2005. 12. 29 | 서울 창일초 배주형군 경로효친 수기 대상 |
| 9 | MBC-TV | 2006. 1. 1 | 편지로 맺어진 조손(祖孫)의 아름다운 인연! |
| 10 | 어린이동아 | 2007. 1. 9 | 국내외 어르신-어린이 편지로 사랑교환 |

1) 연합뉴스(2005. 10. 27)

“할아버지-손자 맺어줘요”

(서울=연합뉴스) 김병조 기자 = "...저는 할아버지가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많이 그리워요" (남양주에서 초등학교생 최동희)

"...친구가 전학갔더니 서운하겠구나.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만나게 될거야. 이 편지를 받아볼 때 동희는 뭐하고 있을까" (대구에서 김형조 할아버지)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최동희(10)군은 태어나기도 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있는 친구가 그렇게 부러울 수 없었다.

아들의 마음을 헤아린 부모님은 '청소년-어르신 사랑의 결연운동'을 통해 대구에 사는 김형조 할아버지(75)를 소개해줬고 동희는 8월부터 김 할아버지와 편지를 주고 받기 시작했다.

두달여 간 편지를 주고 받으며 동희는 자신이 지은 동시집을 할아버지에게 보냈고 할아버지는 존경하는 위인 이야기와 마을 소식, 어릴 때부터 몸에 익힐만한 좋은 습관 이야기를 들려 줬다.

동희는 "할아버지 편지를 기다릴 때 매우 행복하고 편지를 주고 받으면서 어른께 쓰는 공손한 말씨도 알게 됐다"며 "방학이 되면 할아버지를 꼭 찾아 뵙겠다"고 말한다.

핵가족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는 요즘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과 교육을 알지못하고 자란 세대를 위해 시작된 '조손(祖孫) 결연운동'이 화제다.

사단법인 범국민예의생활실천운동본부는 올 6월부터 자라나는 청소년과 사회의 어른들을 이어주는 '청소년-어르신 사랑의 조손(祖孫) 결연운동'에 나섰다.

올 6월부터 시도교육청 추천이나 부모의 신청을 받아 전국의 청소년 300여명을 사회의 어르신들과 1대1로 연결해 편지를 주고 받거나 직접 만나는 인연을 맺어줬다.

결연운동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은 정년 퇴임한 교사, 지방 유림, 자원봉사자 등 다양한 계층으로 짜여졌고 전통예절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인 '실천예절지도사' 보유자들.

운동본부는 두 세대의 격차를 줄이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청소년 문화교육'도 하고 있다.

운동본부 최창학 본부장은 "전통적으로 어린아이들에 대한 교육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맡아왔는데 요즘은 핵가족화로 가정교육이 사라지고 있다"며 "이제는 사회차원에서 다음 세대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최 본부장은 "올해 말에는 지금까지 결연한 300쌍의 조손(祖孫) 커플이 한 자리에 모이는 행사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27일부터 이틀동안 성균관대 600주년기념관에서 '성균관 유도회(儒道會) 창립 60주년 기념 범국민 예의생활실천운동 선언대회'를 열고 '사랑의 결연운동' 초청강좌를 개최할 예정이다.

kbj@yna.co.kr

2) 문화일보(2005. 10. 27)

“도덕성 상실 더 두고볼 수 없어”

창립 60돌 성균관유도회, 범국민 예절 실천운동 선언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은 성균관대 유도회(회장 변훈섭)가 ‘근본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범국민 예절실천운동에 나섰다. 유도회는 이를 위해 ‘사단법인 범국민예의생활실천운동본부’를 지난해말에 설립했으며, 27일부터 29일까지 성균관대 60주년기념관에서 60주년기념식 및 예의실천 선언대회를 연다.

변훈섭 회장은 “사회가 도덕성을 상실한 채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져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가정해체 위기까지 몰리고 있다”며 “이제는 어른으로서 이런 현상을 두고만 볼 수 없어 예절실천운동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충분하면 예절을 안다’라는 옛말이 있지만 요즘 세대는 전혀 그렇지 않아 보인다. 예절운동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작게는 자신의 집안을 살리고 크게는 우리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문화부흥운동”이라고 강조했다.

유도회는 도덕성 상실의 가장 큰 원인이 가정교육의 부재에 있다고 보고 청소년과 사회의 어른들을 이어주는 ‘청소년-어르신 사랑의 조손(祖孫) 결연운동’을 펼치고 있다. 부모의 신청이 있는 청소년에게 할아버지·할머니들과 편지를 교환하거나 직접 만나며 옛 어른들의 전통적 정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취지다.

결연을 맺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유도회에서 발급하는 ‘실천예절지도사’의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들로서 주로 퇴직 교사나 지역 유림 그리고 자발적으로 찾아온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변 회장은 “지난 6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결연운동에는 이미 300여쌍의 ‘할아버지-손자’가 서로 소식을 주고받으며 왕래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올해 말에는 이들이 전부 모이는 대대적인 행사를 준비중이다”고 밝혔다.

이번 60주년 기념행사에서는 ‘21세기 유림의 사명과 역할’이라는 주제로 극작가 신봉승씨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예절교육의 사회화를 촉구하는 성명서 및 건의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변 회장은 “국민 개개인이 가족과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을 조금씩만 더 갖는다면 도덕상실이 라는 위기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며 “유도회의 전국 3000여지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1세대와 3세대사이의 문화와 가치관의 격차를 줄이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청소년 문화교육을 적극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유도회는 1945년 전국 유림 2500여명이 성균관 명륜당에 모여 설립한 유교신도단체의 최고기관으로서 초대회장에는 독립운동가이자 성균관대 설립자인 김창숙 선생이 맡았으며 2대회장에는 국문학자인 이가원 선생이 맡았다. 현재 전체 교직자는 1만8000여명이다.

윤두현기자 ydh117@munhwa.com

기사 게재 일자 2005/10/27

3) 한국일보(2005. 10. 28)

나도 할아버지가 생겼습니다^^

‘청소년·어르신 사랑의 조손(組孫) 결연 운동’
300쌍 탄생... 편지 나누며 애뜻한 정 나눠
핵가족 자녀에 전통·예절 교육 순기능



배주형(가운데)군 가족과 황정두(오른쪽) 할아버지가 9월 만나 기념 촬영했다. 청소년·어르신 사랑의 결연본부 제공

서울 도봉구 창동 창일초등학교 4학년 배주형(11)군과 경남 통영에 사는 황정두(68)씨가 서로를 알게 된 지는 두 달 남짓하다. 하지만 이들은 누구보다 절친한 ‘조손(祖孫)할아버지-손자) 커플’이다. 이들이 나누는 편지글에는 시골에 사는 할아버지와 서울의 손자가 멀리 떨어져 서로 그리워하며 나누는 애뜻한 정이 물씬 묻어난다.

“...다음에 만나면 주형이를 안아주고 싶구나. 언제 기회가 있으면 이순신 장군님의 유적지를 관광시켜 줄게. 통영은 한국의 미항(美港)이라 볼릴 정도로 너무나 좋은 관광지란다. - 9월5일 아침 황정두 할아버지가”

《배주형 군- 황정두 할아버지의 편지》

周亨君에게!

안녕. 몸 건강하고 부모님 가르침 아래 착실히 生活하고 工夫 열심히 하고 있겠지? 항상 건강하고 工夫 잘 하는 모범학생이 되어야 하느니라. 가정에서는 부모님 말씀 잘 듣고 학교에 가서는 先生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과 의중계 생활을 해야 하느니라.
 다음에 만나면 주형이를 안아주고 싶구나. 그리고 언제 기회 있으면 이순신 장군(李忠武公) 유적지를 함께 가져구나.

TO: 할아버지께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일동 *아파트*동 *호*는 배주형이라 해요. 창일초등학교에 다니고요. 4학년 8반이예요. 키도 몸무게도 두중 간쯤 되요. 딱 말해서 정상이요.
 할아버지가 이순신 장군님의 유적지를 구경시켜 드린다고 정말 고맙어요. 이순신 장군에 대해 관심이 많거든요. 텔레비전에서 이순신 장군님의 명량해전이 정말 멋졌어요.

“...벌써 가을이예요. 저도 이순신 장군에 대해 관심이 많답니다. 빨리 할아버지 농장에 가서 농사를 지어보고 싶어요. ? 9월8일 손자 배주형 올림”

지난 8월 우연히 ‘청소년·어르신 사랑의 조손 결연 운동’을 접한 배 군의 아버지 배영조씨는 부부가 맞벌이를 해 보살펴 줄 어른이 없는 외아들을 떠올리고 선뜻 참여 신청을 했다.

처음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르고 자란 아들이 쉽게 받아들일까 걱정도 했지만, 지금은 편지를 쓰면서 즐거워하는 아들을 볼 때마다 흐뭇하기만 하다. 7~8차례 편지를 주고받은 이들은 얼마 전 실제로 만나기도 했다.

사단법인 ‘범국민예의생활실천운동본부’가 벌이는 조손 결연 사업은 편지 전화 이메일 등 다양한 의사소통 방식을 통해, 우리 사회의 핵가족화와 가족 해체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 운동이다.

지난 6월 말부터 시작돼 지금까지 300쌍의 조손 커플이 탄생했다. 양우석(40) 청소년·어르신 사랑의 결연본부 총괄처장은 “예상했던 것보다 청소년과 어르신들의 참여 의지가 높아 서로 의사소통에 별 어려움이 없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과 노인들은 자칫 잘못하면 소외계층으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이 운동을 통해 경륜이 있는 노인들에게 청소년 문제 해결이라는 사회적 역할을 맡김으로써 청소년 이탈과 노인 소외라는 두 가지 사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상자는 시도교육청의 추천이나 부모의 신청을 받은 전국의 9~19세 사이의 청소년과 유림의 추천, 혹은 전통예절에 대한 일종의 자격증인 ‘실천예절지도사’ 교육을 이수한 분들(만 65세 이상) 중에 선정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비율은 6대4 정도로 청소년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정해진다. 결연 기준도 엄격해 원거리 배정 원칙을 지키고 있다. 자칫 어린 청소년들이 무리한 금전적 요구를 할 경우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우리 사회에 극단적 이기주의는 세대 간 예절 교육의 단절에서 비롯된 측면이 큽니다. ‘동방예의지국’의 면모를 되찾기 위해서 사회 차원의 교육은 필수적인 것이지요. 이를 위해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다년도 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결연 본부는 연말에 300쌍의 조손 커플과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남의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입력시간 : 2005/10/27 18:20

4) 연합뉴스(2005. 12. 26)

새 할아버지·할머니와 손자·손녀의 만남



(서울=연합뉴스) 김태중 기자 = 사단법인 범국민예의생활실천운동본부는 26일 오전 성균관대 600주년 기념관에서 청소년과 어르신들을 이어주는 `사랑의 조손(祖孫)운동 만남의 날 축제'를 열었다.

평범한 가정의 청소년과 사회의 어른들을 이어줌으로써 서로를 이해하고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성장을 돕도록 하기 위해 올 6월부터 시작된 `사랑의 조손운동'의 이날 행사에는 그동안 편지만 주고 받은 청소년-어르신 20여쌍이 첫 만남을 가졌다.

청소년들은 처음 만난 새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등 2시간여동안 정다운 시간을 가졌으며, 효친수기 공모전 시상식에서는 서울 도봉구 창일초등학교 배주형(11)군이 `새 할아버지'란 시로 대상을 받았다.

실천운동본부는 `사랑의 조손운동'을 확대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을 이끌고 세대간 이해의 폭을 넓혀 국민통합의 장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taejong75@yna.co.kr

5) 동아일보(2005. 12. 27)

‘청소년-어르신 사랑의 결연’ 5개월만에 첫 만남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명륜동 성균관대에서 열린 제1회 ‘청소년-어르신 사랑의 결연운동 만남의 날 행사’에서 조순 결연을 한 어린이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꽃다발을 주고받으며 첫 만남을 축하하고 있다. 이종승 기자

강원 강릉시에 사는 김운주(12·옥천초교 6년) 양은 26일 오전 6시 눈을 뜨자 가슴이 콩닥거렸다. 이날은 7월부터 학수고대해 왔던 ‘가을 할머니’를 만나는 날이기 때문이다.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오다 깜빡 잠이 든 김 양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가을 할머니’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꿈을 꿴다.

운주는 외할아버지의 소개로 ‘청소년-어르신 사랑의 결연운동’에 참여해 ‘가을 할머니’ 방유자(66) 씨와 5개월 동안 e메일과 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아 왔다.

범국민예의생활실천운동본부에서 마련한 ‘청소년-어르신 사랑의 결연운동’은 손자 손녀뻘인 청소년과 할아버지 할머니 격인 노인 300쌍이 결연해 서로 연락을 하며 정을 주고받는 프로그램이다.

김 양은 머플러를 하고 선글라스를 낀 방 씨의 사진을 보고 따뜻하고 세련된 주황색과 잘 어울린다며 ‘가을 할머니’라는 애칭을 붙였다.

방 씨는 친손자가 모두 미국에 나가 있어 볼 수 없는 아쉬운 마음을 김 양과 나누고 있다. 그는 이번 크리스마스 때 김 양에게 멜로디 카드와 알록달록한 목도리를 보냈다.

처음에 쑥스러워하던 김 양은 이모티콘까지 넣어 예쁘게 보내 주는 ‘가을 할머니’의 e메일에 점점 마음을 열어 이제는 시험에서 1등한 얘기, 할머니에게 받은 사인펜을 친구들에게 자랑한 얘기 등으로 자주 e메일을 보낸다.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명륜동 성균관대 600주년 기념관에서 제1회 ‘청소년-어르신 사랑의 결연운동 만남의 날 행사’가 열렸다.

방 씨가 소포로 보내 준 목도리를 하고 행사장에 나타난 김 양은 “제가 오는 길에 꿈꿨던 것처럼 연보라색 예쁜 한복을 입고 오셨어요”라며 방 씨를 보고 활짝 웃었다.

이날 행사에는 방 씨와 김 양 외에 결연을 한 34쌍이 참여했다.

염희진 기자 salthj@donga.com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입력 | 2005-12-27 03:00 출처 : 동아일보 & donga.com

6) KBS 뉴스(2005. 12. 26)

청소년과 어르신들의 만남의 자리 마련돼

청소년들과 어르신들의 만남을 이어주는 '사랑의 조손운동' 만남의 날 축제가 오늘 오전 성균관대학교에서 펼쳐졌습니다.

사단법인 범국민예의생활실천운동본부는 청소년과 어르신들의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사랑의 조손운동을 실시해 그동안 편지를 주고 받은 청소년과 어르신 20여쌍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효친수기 공모전 시상식도 열려 서울 도봉구 창일초등학교 11살 배주형 군이 '새 할아버지'란 시로 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회] 김지영 기자

입력시간 : 2005.12.26 (13:25)

* 출처 : <http://news.kbs.co.kr/article/society/200512/20051226/816135.html>

7) CBS 라디오(2005. 12. 27)

“정범구의 뉴스매거진 오늘”



- ▶ 제 목 : 사랑의 조손(祖孫) 맺기운동을 아시나요?
- ▶ 방송일자 : 2005. 12. 27
- ▶ 인 터 뷰 : 대구노변초등학교 6학년 정하경 어린이
‘청소년·어르신 사랑의 결연운동본부’ 최창학 본부장

- 프로그램 : 정범구의 뉴스매거진 오늘
- 방송시간 : 오전 9:05 ~ 11:00(월 ~ 토)
- 진행 : 정범구
- 제작 : 양병삼 이재상
- 작가 : 최지영 김현정
- 취재 : 박현정
- CBS Radio 표준FM98.1MHz

* 출처 : <http://www.cbs.co.kr/radio/pgm/?pgm=18>

8) 어린이동아(2005. 12. 29)



2005년 12월 29일 목요일 | 동아일보사 발행 제12600호 | 일간 | kids.donga.com

2 2005년 12월 29일 목요일

종합

새 할아버지 배주형(서울 창일초교 4년)

| | | |
|---|--|--|
|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찾아오신 시골 할아버지 | 편지 속에서 허허허 웃으시는 새 할아버지 | 우리 손자, 안녕 다음에 만나면 안아주마 다정하신 새 할아버지 |
| 반가운 편지를 받을 때마다 내 마음은 벌써 궁금함 때문에 호기심 때문에 가슴이 퐁당퐁당 | 정성껏 쓴 편지 보낼 때마다 내 마음은 벌써 할아버지가 기뻐하실까 언제 또 답장 받을까 가슴이 두근두근 | 처음엔 몰랐지만 친구와 의종아라 건강이 최고란다 잘 자라라고 걱정해 주시는 새 할아버지가 이젠 너무 좋아요 |

서울 창일초 배주형군 경로효친 수기 대상

서울 창일초교 4학년 배주형 군이 26일 성균관대 6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경로효친 수기 공모'에서 대상을 받았다.

배 군은 6월 행정자치부와 (사)범국민예의생활실천운동본부가 마련한 '청소년어르신 사랑의 결연본부'를 통해 경남 통영시에 사는 황정두(68) 씨와 '조손(祖孫)' 결연을 맺고 한 달에 2, 3번 편지로 서로 안부를 물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배 군은 '새 할아버지'를 친할아버지처럼 대했고 고민이나 자랑을 편지에 담아 보냈다.

황 씨는 "주형이가 통영에 놀러 오면 이순신 장군 유적지를 구경시켜 주겠다"고 답장하며 '조손' 간 정을 나눴



배주형 군



황정두 씨

다. 배 군은 이날 새 할아버지와와의 정을 담은 동시 '새 할아버지'로 대상을 수상했다.

배 군은 "새 할아버지는 항상 '허허' 웃으시며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내년 1월 중에는 할아버지 댁을 방문해 군밤을 까먹으며 옛날이야기를 듣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배수강 기자 bsk@donga.com

9) MBC TV(2006. 1. 1)



- ▶ 프로그램 : 늘 푸른 인생
- ▶ 제 목 : 편지로 맺어진 조손(祖孫)의 아름다운 인연!
- ▶ 방송일자 : 2006. 1. 1
- ▶ 인 터 뷰 : 이광희 할아버지
대구노변초등학교 6학년 정하경 어린이

- 프로그램 : 늘 푸른 인생
- 방송시간 : 매주 일요일 오전 6:10
- 진행 : 이운재, 강영은
- 연출 : 안지용
- MBC TV

* 출처 : <http://www.imbc.com/broad/tv/culture/evergreen/vod/index.html>

10) 어린이 동아(2007. 1. 9)



2007년 1월 9일 화요일 | 동아일보사 발행 제12919호 | 일간 | kids.donga.com

2 2007년 1월 9일 화요일 kids.donga.com

국내외 어르신-어린이 편지로 사랑교환

범국민예의본부, 수기집 출간... 완도 박현진학생 최우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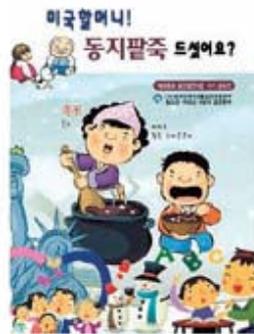
“미국에 계시는 할머니, 주름살은 몇 개예요? 웃는 얼굴은 예뻐요?”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자들이 서로를 그리워하며 쓴 편지가 수기집(사진)으로 나왔다.

수기집에는 범국민예의생활실천운동본부(예실본)가 최근 개최한 해외동포효친결연사업 수기 공모전에 참가한 할아버지, 할머니, 어린이들의 편지글이 실렸다.

해외동포효친결연사업은 세계 각지에 사는 어르신을 국내 어린이들에게 소개시켜 주는 ‘조손(祖孫) 결연’ 사업. 반대로 해외에 사는 청소년과 국내 어르신을 연결해 주기도 한다.

‘새 할아버지’ ‘새 할머니’가 ‘새 손자’와 서로 안부를 물으며 정을 나누고 때



론 만남의 자리도 마련한다.

예실본은 지난해 150명의 ‘어린이·어르신 커플’을 만들었고 올해는 ‘해외동포 효친운동’을 확대해 다양한 만남을 기획하고 있다.

한편 수기 공모에는 전남 완도군 중앙초교 5학년 박현진 어린이와 경기 고양시 풍산초교 4학년 김윤하 어린이가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탔다. 수기 내용은 홈페이지(hyochin.or.kr)에 실렸다.

배수강 기자 bsk@donga.com

☎ 110-523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3가 53번지
성균관유림회관 210호

(사)범국민예의생활실천운동본부
조손결연본부

전화 : (02)745-0921 ~ 2,

FAX : (02)747-4805, 3672-4805

홈페이지 : yejeol.or.kr

E-mail: beecheon@yahoo.co.kr